

## 3 뉴스

지장협-세계한글협회 MOU



## 12 특집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 14 인물

여행작가 전윤선



## 18 국제

뉴욕 in 장애인 페레이드



# 2015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한여름에 펼쳐진 뜨거운 기능 경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김광환 중앙회장이 경상북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올해 20회째를 맞이한 201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7월 24일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뜨거운 경합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2014년도 대회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됐다. 총 2611명이 참가해 34개 직종에서 경기를 치렀다.

17개 시·도 지역의 한국폴리텍 대학 및 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치러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고,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제작 등 20개의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CAD 등 12개의 시범 직종, 그림 등 2개의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의 경기를 편성했다.

본격적인 경기는 서울 26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0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중 금상 325명, 은상 292명, 동상 219명 등 총 836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정규 직종의 경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이, 시범 직종과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입상자, 기관자, 부정행위자 및 직종별 채점 기준에 의한 실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참가 선수 전원에게 참가 장려금 5만 원이 지급되며,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 시험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더불어 금상 수상자 325명은 올

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메르스 여파로 대회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많은 선수가 전국에서 고르게 참가해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상의 기량을 선보인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명승부를 펼쳐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애학생 꿈 담는 틀

서울지장협, 시교육청에 카페 개소



7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카페 꿈틀 제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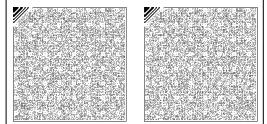
지난 7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행사광장에 위치한 ‘카페 꿈틀’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 관계자들이 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 특수교육과 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1son & 1jary(최고의 일손 & 최고의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내건 ‘카페 꿈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손영호, 이하 서울지장협), 서울특별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지)이 함께 특수교육과 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손을 잡은 결과물이다. 카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학생들의 직종체

험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성년기를 준비하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페 이름도 장애학생의 꿈을 담는 틀이라는 뜻을 담아 ‘꿈틀’로 지었다.

이 카페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카페 장소를 제공했고, 서울지장협이 카페의 운영을 맡았다. 또 북부장복지이 장애인 학생의 직종체험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서울지장협 관계자는 “카페 꿈틀은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장애인 바리스타 2명을 고용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며 “향후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들의 직종체험과 직업훈련의 장으로서 많은 장애인 학생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조직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협회와 지역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제7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중앙회장 선거에서 과거의 집행부와 연대하겠다는 후보 대신 지장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저 김광환을 선택해주신 대의원들의 지장협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저는 2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내팽개쳐진 중앙회와 지방조직, 그리고 시설들에 대해 개혁적 기치를 내걸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리 조직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던 중앙회 사무처조직을 개편하여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장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얼룩진 우리 협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선물을 빙자한 관행적인 상납과 인사청탁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장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설립자이신 故 장기철 회장님의 철학이자 지장협의 양대이념이었던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책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장애계의 대외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장협 조직을 정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의 물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 비리,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뼈를 깎아내는 각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아직도 중앙회는 물론, 일부 산하조직에서도 수익 원에 이르는 부채와 소송문제가 남아있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협회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였습니다. 과거 몇몇 특징인이 독단적으로 자행했던 의사결정 구조를 혁파하고 각종 회의와 협의체를 운영함

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협회의 변화된 모습을 확연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무처 직원들의 협회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통해 업무태도가 변화하였고, 조직에서는 투명한 운영과 엄정한 행정절차를 엄수함으로써 사건 사고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협회를 바라보는 대내외적인 시각도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장애계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 기대하는 역할과 참여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대내외의 기대를 망라하여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를 종합하여 비전선포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모토를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이라고 천명하며 4가지 미션과 1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개혁과정에서 도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부정부패 세력들은 영화를 탈환하고자 저와 협회에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취임하자마자 역대 어느 선거보다 민주적으로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를 부정선거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패소했음에도 아직도 미련을 갖고 소송을 벌이는 등 협회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경제적·정신적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저에게 사업권을 요구하였으나 합리적인 명분 없는 부당한 협박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지장협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중앙회 사무실 주변에 수개월 동안 게시하고 지장협의 이미지를 훼손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할당시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중앙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자, 이를 기회로 협회와 무관한 세력을 이끌고 잘못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중앙회 사무처를 장악하고 협회를 유린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정정되어 3시간 만에 모든 일당이 쫓겨나면서 끝이 난 이 소동을 주도한 사람은 모 지역 협회장으로

재직하다 부당행위로 해임당한 인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운영한 사업을 빌미로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등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내세워 수사를 요구하고 조만간 구속될 것이라는 유언 비어를 유포해 조직원들을 현혹하려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 지역 협회장으로 재직하며 수익사업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익여 원이 넘는 부채를 협회에 떠안긴 인사와 역시 실버타운 운영권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기고 책임을 우리 협회에 떠넘긴 중앙회 간부 출신 인사 등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지난 7월 초 검찰에서 장고협이나 저 김광환과 관련해서는 무려 다섯 가지에 이르는 혐의 중 어느 하나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장협의 조직원과 장애인 회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저와 우리 협회에 주어진 비전과 미션을 성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지장협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위상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온전히 구현해 낼 것입니다. 지장협 30년사 발간 등 지장협 3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장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장애인정책개발로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의 고용과 편의시설, 문화, 체육, 관광 등 장애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지장협이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장애인의 인권익식 향상과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가 전국 시·군·구단위까지 구성을 완료한 장애인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인권옹호에 앞장서며, 장애인 인재양성과 자주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장협의 조직원과 장애인 회원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김광환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자랑스러운 지장협의 조직원과 장애인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장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기에 앞으로의 여정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지치 않는 열정으로 변함없이 지장협을 사랑해주시고 저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의 가편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대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1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올림.



# 지장협-세계한공협회 MOU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협력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 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사)세계한공협회(회장 허광)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6월 30일 지장협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전통 생활체육인 한공의 보급과 발전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목적으로 한공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후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이 참가하는 전국장애인한공대회를 개최해 한공을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협



지장협과 세계한공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약식에서 “체육활동은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절실한 부분”이라며 “안전하면서도 다

양한 운동 효과가 있는 한공 보급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세계한공협회 허광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공

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올림픽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며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한공의 발전을 위해 각종 한공대회 개최와 심판·지도자 교육연수 사업, 한공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협력할 예정이다.

세계한공협회 허광 회장이 창시자인 한공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의 장점을 접목해 만든 생활체육이다. 안전한 한공핀을 이용해 과녁을 맞으면, 구역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가 산된다. 장애인·비장애인 남녀 노소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

## 비례대표제 확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

###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열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인 구수 편차율 3대 1로 규정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접화된 가운데, 장애인계에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7월 22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 비례대표제 도입 약자의 조직화에 도움

이날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도입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그룹의 조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조건에선 지역표 관리에 에너지를 쓰는 게 현명한 일이지만, 비례대표제 환경에선 각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전경.

정당이 자기 이념과 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그에 동조하는 이익집단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서 주요 이익집단의 사회세력화 및 정치세력화를 직접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태욱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은 정치권만 바라보며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세력화해 강력한 개혁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정권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

이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선거법·제도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와 개정방안’을 발제하며 보완 사항을 제언했다.

김의수 연구원은 ▲점자선거홍보물 지원방안 개선 ▲선거방송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해설 동시지원 의무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실비 및 수당 지급 ▲민법상 자격·권리를 제한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보장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소 관리 보완 ▲신형 기표대 장애인 접근성 보완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관련법에 장애인 권리보장 조항 신설과 개정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적한 조항들의 개선이 더딘 정황으로 볼 때, 공직선거법 조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참정권 보장 관련 편의제공 기조가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장애인 대표 선출

한편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논의를 확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당혁신 운동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엘리트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정치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장애인의 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선전 및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어 말했다. 밀실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공허해진다는 말이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추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삼호 실장은 “이제는 장애인운동과 조직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 만큼 장애인 사회의 에너지를 전체 사회 변화로 풀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비례대표든 장애인단체든 간에 장애인 사회에 국한되는 쟁점에만 매달리기보다 전체 사회가 공감하는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 소득세 경감 및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혜택 등 소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책자 표지. ©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을 발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2회 나눠 연재한다.

### ◆ 소득세 경감 및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혜택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 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혜택을 제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사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불입액의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불입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를 적용하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애인의 경우 재학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된다.

###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비영리 포함)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당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제

외 대상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이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모두 면제한다.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하면 된다.

##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토론회

###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자기결정권 증가에 기여할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새누리당 김경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방식 도입을 둘러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금지급제도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있다. 신자유주의 진영은 이 정책의 시장적 특징에 찬사를 보내고, 신노동운동 진영은 공공서비스의 광범위한 선택 추진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또 이용자들은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두 교수는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주류 사회와의 소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의 집합적 접근

법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주도 지원 및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인예산제도는 대대적인 복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에 대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전문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

인의 자기결정권을 증가시키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현금지급방식을 도입하려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정부 측에서는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

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현금지급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위기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에 현금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현금급여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영국에서 인컨트롤이 개인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주춧돌이 되었던 우리나라도 민간 실험을 통해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장애인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대

###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지역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장애인문화예술가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워크숍과 문화예술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와 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에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에는 20여 명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가가 참가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운근 문화예술본부장이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의 현황 및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고, 이어 애니엔제임스 황교준 차장이 장애인문화예술 브랜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장협 대외협력부 오창석 과장은 “지역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장협이 지역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장협은 곧이어 충남, 전라, 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지역에서 워크숍과 역량강



성명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지한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심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평행주차가 불가

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타구역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굳이 주차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거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위반은 모면하면서 개인의 이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는 행위.

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에 의하면 주차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9만 건(추정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한 개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5.07.23.

(사)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 장애인 보건의료 차별금지 법안 발의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구) 의원은 장애인이 의료보

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

월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한 관련 법 제10

조 2항에 ‘장애인’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본인이나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간의 존엄은 성별,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기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례식장, 이동약자 편의시설 개선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보건복지

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이동식경사로, 접이식 식탁 등의 편의용품 비치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솔루션은 과거와 달리 장애인들은 사회적 활동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인 등의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

아졌지만, 장례식장의 주출입구나 복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정작 조문을 위한 내부 접근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장은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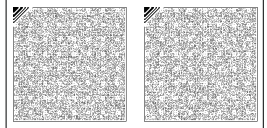
그러나 내부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

라서 분향소 입구에 턱이 존재해 휠체어 장애인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뿐 아니라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장소는 좌식식탁인 경우가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이 어렵다.

현재 솔루션 측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낙인과 편견을 넘어 권리 찾기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해법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7월 21일 이룸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등이 함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앞두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취업·교육·문화생활 등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법규 및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의 차별 조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9만 8663건 및 법률 4268건 중 차별 조항 수가 2183건으로 나타났고, 그 중 60%에 해당하는 1329건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이었다. 분야별로 고용 분야에서 4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고용 불이익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상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도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아닌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대 KAMI 박미선 사무국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입각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 사회관계 형성을 못 하거나 증상 때문에 중간적 주거시설에도 못 가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온전한 독립 주거

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장애인처럼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받은 활동보조인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가 향후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일환으로서 성년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서용진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새로운 제정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지난 20년간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을 돌아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인권과 탈시설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본 제정법은 정

신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임엔 분명하지만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전망했다.

그 밖에 정신장애인 가족으로 토론에 입한 김미희 씨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은 정신보건법의 보건영역에서 과감하게 복지를 분리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복지와 자립,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며 지지를 보였다.

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가족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복귀, 자립생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김춘진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토론회 다음 날인 26일 김춘진 의원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고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 가브리엘작업장 등 4곳 지원

근로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의 관리기능 강화 및 장비보강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과 장애

인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능보강지원 신청을 받았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해 7월 2일 기능보강비를 배분했다.

이에 선정된 가브리엘작업장과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근로자 개인 사물함,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냉난방기 콤프레사 교환, 강서

구휴면희망일터는 우드펜터링을 설치해 7월 21일 결과보고를 마쳤다.

지장협 관계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 필요한 기기를 설치한 작업장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하는 작업장이 많은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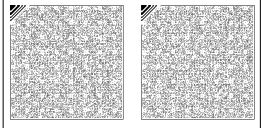


가브리엘작업장 캐비닛 교체 전



기능보강을 통한 캐비닛 교체 후





## 경북지장협, 장애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장애인 관련 조례 모니터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경북지장협이 개최한 장애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기념 촬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는 7월 3일 산하 시·군지회장, 시설장을 대상으로 '제2차 장애인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김광환 중앙회장이 강사로 나서 시·군지회가 해야 할 일, 실무적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강의에서 "도협회는 시·군지회의 매개자

로서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방향을 전환해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도협회 직원들의 연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앙회에서는 도협회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시·군지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모니터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지장협,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추진

### 김기호 협회장 "장애유형별 적합일자리 개발 필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와 경기도, 수원택시협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7월 28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지원 제제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사업대상자 및 택시사업장 발굴과 장애인택시 보조기

기 설치 지원 등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택시업계에는 인력을 공급하는 상생형 사업으로 경기지장협이 주도해 성사됐다. 올해는 수원 인근 8개 시·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운전원 40명을 양성해 택시회사에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장애인택시용 보조기

기와 초기 사납금 일부도 지원한다.

김기호 협회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며 "대부분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유형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



'장애인 택시운전원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신규 일자리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의정부, 성남 등 도내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택시운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남포항라이온스클럽, 포항시지회에 백미 100포대

###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 위해 봉사할 터"



남포항라이온스클럽이 포항시지회에 백미 100포대를 기증했다.

국제라이온스356-E지구 남포항라이온스클럽(회장 홍명표)은 7월 6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복)를 방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백미(10kg 단위) 10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 백미 기증 봉사는 남포항라이온스클럽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12대 홍명표 회장 취임을 맞아 특별히 이뤄졌다.

이날 남포항라이온스클럽 홍명표 신임회장은 "백미기증 봉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라이온스클럽의 설립이념인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문경시지회, 여성장애인 대상 론볼 교육

### 론볼 클럽 만들어 대회 참가 포부



문경시지회가 진행한 론볼 교실 참가자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 여성장애인지원센터는 지체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신감 회복을 목적으로 론볼교실을 운영했다. 론볼교실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프로그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4월부터 6월 까지 3개월간 열렸다.

론볼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문경시지회 감사이자 론볼 대회에서 우승한 경

력이 있는 노병일 씨가 지도를 맡았다.

참가자 김 모 씨는 "론볼에 대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어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전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3개월 동안 즐겁고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끝난 후에도 꾸준히 연습해 실력을 향상하고 화합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문경시지회는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론볼 클럽을 만들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각종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제주도 지체장애인바다체험대회

## 안전하고 장애친화적인 프로그램 체험

제주도에서 무더위에 맞서는  
이색 이벤트 '2015 제주도 지체  
장애인바다체험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시 장협)가 7월 18일 제주시 구좌체육관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평소 여가 및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제주지장협 측은 “휠체어나  
목발 등 보장구에 의지하는 중증  
장애인 및 기타 유형별 장애인들

이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려면 출입부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애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회는 당초 제주시 김녕 해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11호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좌체육관에서 실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회에는 제주도의회 김명만, 이상봉, 유진의, 고태순, 부공남 의원과 현석교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 주요 인사와 장애인

인단체장, 장애인 및 가족, 자원 봉사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제주시장협  
측은 제주방어사령부와 김녕 청  
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  
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한국마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했다.



‘2015 제주도 지체장애인바다체험대회’가 7월 18일 구좌체육관에서 열렸다.



강원지장협이 개최한 '2015년 차세대 장애인지도자 양성교육' 기념 촬영.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흥수, 이하 강원지장협)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설악 쉼밸리리조트에서 '2015년 차세대 장애인지도자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강원지장협의 시·군지회장

을 비롯해 도내 거주 중인 장애인 57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첫째 날은 강원도청 박영립 주무관이 '장애인복지의 이해'를

## 강원도 차세대 장애인지도자 양성교육

## 장애인지도자 역량강화 해 권익증진 기여

강연한 데 이어 이태수 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리더의 소통에 대해 교육했다. 또 저녁 시간엔 민원봉사실 전미경 부장이 '나를 먼저 알고 가기' 코너를 마련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MBIT, DISC 검사와 해설을 진행했다.

다음 날엔 이명숙 강릉지역자  
활센터장이 '조직 활성화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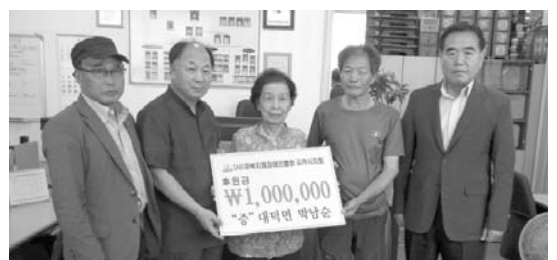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강연했고, 마지막으로 함께 장애인복지의 미래비전을 그리는 시간을 보냈다.

교육을 주최한 김흥수 협회장은 “이틀간 다짐한 것처럼 장애

인 지도자로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꿈을 만들고 실현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지장협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주위 김천시지회에 100만 원 후원

## 90세 지체장애인 박남순 할머니



90세 지체장애인 박남순 할머니의 후원금 전달식.

경북 김천시에서 폐지를 주워  
모은 100만 원을 어려운 장애인  
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90세  
장애인 할머니가 화제다.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에 사는 박남순(지체 6급, 90) 씨는 7월 15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이하 김천시지회)를 찾아 박선하 지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덕면 김영래 분회장과 지회 임직원이 참석해 박 씨의 선행에 큰 박수를 보냈다.

평소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박 씨는 부지런히 폐지나

빈 박스를 주워 푼푼이 돈을 모았다. 90세의 고령인 박 씨에게 쉬지 않고 폐지를 주운 이유를 묻자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조용히 답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박남순 어르신께서는 본인도 혼자 어렵게 살아가면서 한 푼 한 푼 모으셨다”며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천시지회는 박 씨의 바람대로 후원금을 어려운 지역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포시지회-김포상의식품협의회 MOU

##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펼칠 것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와 김포상의식품협의회 사랑의 봉사단(이하 사랑의 봉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26일 사랑의 봉사단 회장인 (주)고향식품 신복순 대표와 김포시지회 이경규 지회장은 위와 같은 포괄적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인적·물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사업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포상의  
기업지원사업부 박기용 부장  
과 사랑의 봉사단 회원사 중



김포시지회와 김포상의식품협회의 사랑의 봉사단이 MOU를 체결했다.

‘이기중 김치’로 잘 알려진 (주)미래의 조재승 대표, (주)해여름 한규모 대표, ‘김구원 선생 두부’의 김동윤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신복순 회장은

“우리 식품협의회는 다양한 품목의 식품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 회원사의 특징을 살려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포상의식품협의회는 김포시 관내의 식품 관련 중소기업 1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사를 2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포시지회와 사랑의 봉사단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100년을 향한 도약

## 처인장북 개관 10주년 기념식



처인장북이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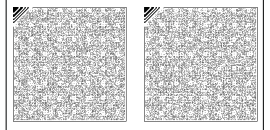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북) 개관 10주년 기념식이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관 10년! 100년을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백근기 국회의원, 이우현 국회의원의 부인 한원미 여사, 유관기관 시설장 등의 내빈과 복지관 이용고객, 후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축하공연, 개관 10주년 기념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처인장북 비전 2020! 선포식 순서로 진행했다.

부대행사로는 ‘나눔처인! 행복복처인! 기획전시회’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복지관 1층 로비에서 펼쳐졌다. 전시 작품은 용장평생학습관 캘리그라피, 주관보호센터 도자기, 장애인식개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선공모전 작품 등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용인시의회 정례회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신현수 용인시의장 등 시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개관 10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철 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복지가치를 실현하는 행복 파트너’라는 새로운 미션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용인시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갈 것”고 전했다.

## 2014년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 의정부장북·유성장북 전국 시도별 상위 10% 이내 기관 선정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북)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북)이 2014년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전국 시도별 상위 10% 이내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부장북과 유성장북은 이번 선정결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장북 김인숙 관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이내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증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 지역사회와 이용고객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종사자들의 열정이 융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상위 10%에 걸맞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유성장북 손성도 관장은 “우리 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자

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서 “잘 다진 기초위에 장애인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복지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두 복지관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사회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지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서 모두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장애아동 생일 파티, 이마트가 쏜다

### 성남장북-이마트 분당점 업무협약 체결



성남장북과 이마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29일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 이하 성남장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마트 분당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분당점은 협약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진행을 위한 후원 및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첫 사업진행으로 장애아동 생일선물 지원사업인 ‘분당 이마트점이 쏜다! 희망아~ 생일축하해’를 진행했다. 8월 생일인 장애아동의 생일

파티는 아기자기한 장식을 배경으로 다양한 음식을 마련했고, 평소 장애아동이 갖고 싶어 한 선물을 증정했다.

앞으로도 분당 이마트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일 선물 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아동가정에 매월 특별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장북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지역 장애아동 생일 지원을 해 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카드 임직원의 어느 특별한 여름날

### 북부장북, 삼성카드와 삼계탕 나눔



삼성카드 임직원이 삼계탕을 만들고 있다.

삼성카드 임직원이 삼계탕을 나누며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들은 7월 18일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손영호 관장, 이하 북부장북)과 함께 ‘당신

만의 특별한 삼계탕’ 행사를 마련하고 직접 삼계탕을 만들었다.

더운 날씨에 뜨거운 불과 마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삼계탕을 만든 삼성카드 사회봉사 담당자는 “무척 덥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 정성을 담은 특별한 삼계탕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행복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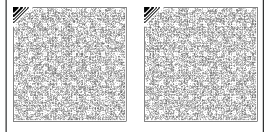
2009년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는 50여 명의 삼성카드 사회봉사단이 참가해 복지관 직원과 함께 요리와 배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삼계탕과 신선한 과일도시락을 중증장애인 200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삼계탕을 받은 중증장애인 정OO(45세·여) 씨는 도시락을 받은 직후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파란 조끼를 입고 땀을 흘리며 초인종을 누른 봉사자와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시원한 물 한잔 대접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성스런 삼계탕 덕분에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북부장북과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바리스타 북카페 ‘커피마노’ 개소

## 진천장북,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에 활용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북)에 장애인 바리스타 북카페가 개소했다.

6월 25일 카페 준공 및 개소식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커피마노는 국제라이온스협회365-D 충북지구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 건물 1층을 개축해 만들었다. 카페는 지역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직업훈련 사업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영훈 진천군수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장애인들이 이 카페를 발판으로 취업과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커피마노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지역 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뽑은 커피 시음회를 열었다.

한명수 관장은 “장애인이 직접 커피를 만들며 일하는 모습에서 희망이 보인다”며 “커피마노를 제2, 제3의 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수익금은 중증장애인 종사자의 임금과 재료구입 및 카페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리스타 북카페 ‘커피마노’ 개소식 기념 촬영.

## 남부장북-공주시자원봉사센터 MOU

###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남부장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북)과 공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홍현)가 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공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개발 ▲재능기부자 연결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양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 협조 및 인적 교류, 시설 이용 등 공동의 사업 수행을



남부장북과 공주시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부장북 임대혁 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식은 지역 자원봉사자가 복지관 서비스에 참여해 봉

사활동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영천장북, 복날 무료급식

### DGB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영천장북이 진행한 복날 무료급식 풍경.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이 복날을 맞아 지역장애인에게 보양식을 나눴다.

영천장북은 DGB사회공헌재단의 도움으로 7월 23일 중복을 맞아 식당에서 관내 이용고객 100여 명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을 통해 받은 복날 무료급식비 후원금 50만 원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더위에 지친 마음과 건강 회복의 자리를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에 이재근 관장은 “후원금을 주신 DGB사회공헌재단과 배식을 해주신 대구은행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괴산장북, ‘성장-mentoring’ 캠프

### 집단 활동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배양



괴산장북이 장애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mentoring’ 캠프를 진행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은 2015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mentoring’의 세부프로그램인 우리두리캠프를 실시했다.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

일간 괴산군 청천면 글래하우스 펜션에서 진행된 캠프는 멘토, 직원을 포함해 17명이 참가했다.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집단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역량강화훈련 및 자존감을 향상하고자 기획한 캠프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멘티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수확도 얻었다.

정효선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우체국공공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최했고, 괴산장북이 주관하여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 ‘힐링푸드스토어 반찬가게’ 호평

### 달성장북, 공동모금회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북)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2014년 배부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달성장북은 2012년부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장애인들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힐링푸드스토어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반찬가게를 통해 지역 여성장

아인들이 활발하게 배우며 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톨모델로 평가받았다.

정우선 관장은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힐링푸드스토어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를 판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판매영역을 점차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아산시 택시운전사 장애인복지에 앞장

## 아산장복-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MOU



아산장복과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과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지부장 강준규, 이하 아산시지부)는 7월 22일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 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개인택시운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산장복의 홍보대사가 되기로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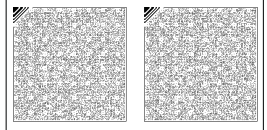
각각 택시 뒷자리에 복지관 리플릿을 비치해 택시이용고객(지역주민, 지역장애인)에게 복지관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강준규 지부장은 “개인택시 사장들이 나서서 아산시 지역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택시기사들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홍보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 아산시지부는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아산시지부가 운영하는 온양LPG충전소(독산동)를 이용할 경우 무료세차 지원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홍보대사 활동을 승낙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10년간 중증장애인 37명에게 틀니지원

### 문경시 치과의사회, 문경장복 통해 정기 봉사

지적장애 2급 홍 모(47세) 씨는 80대 노모와 함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적 수준이 7세에 불과해 평소 신체관리란 물론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치아가 전체적으로 상해 틀니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감히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홍 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에서는 문경시 치과의사회(회장 김희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실로 홍 씨를 비롯한 저소득 장애인 3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었다.



문경시 치과의사회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틀니시술을 하고 있다.

틀니지원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말할 때 발음이 새는 등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간 문경시 치과의사회 회원들은 10년 동안 매일 2차례씩 복

지관을 찾아 정기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를 통해 치주염, 스케일링, 구강위생지도 등 진료활동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7명에게 7,600만원 상당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했다.

## 행복한 삼계탕 530그릇

### 달구벌장복, 삼성생명 대구사업부와 보양축제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와 함께한 보양식 나눔.

지난 7월 21일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장복)에서는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와 함께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보양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복보양축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530명의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방문해 삼계탕을 제공받았다.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가 200만 원 상당의 삼계탕을 지원했고 임직원 15명이 삼계탕 배식과 식사보조까지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밖에 복지관 사회복지현장 실습생 18명과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인 행복나눔봉사단의 봉사단원 10명이 함

께 참여했다.

평소 영양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제공한 이 행사는 올해로 7년째 진행되고 있다. 2014년까지 복지관 이용자 및 저소득 장애인 5600명에게 해마다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영양 결핍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삼성생명 대구지역사업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달구벌장복은 더 많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 2차 행복보양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정을 찾을 때까지만 보호한다는 위탁가정의 약속대로 정원을 이끌어 보내야 했다. 조수정 씨는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병춘 국장은 “먼 곳에 있지만 아빠, 엄마가 정원을 늘 사랑한다”며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동정

## 중앙회 양병춘 국장 가족

### KBS 아침마당 출연...잔잔한 감동



양병춘 국장 가족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감동을 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양병춘 조직시설국장 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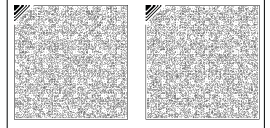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7월 15일 아침마당 ‘전국 이야기 대화-내 말 좀 들어봐’ 코너에서 첫 번째 참가자로 나선 양병춘 국장의 부인 조수정 씨는 2년간 위탁가정을 하며 느낀 감동과 이별의 아픔을 털어냈다.

조수정 씨는 자신의 아들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호받지 못하는 다른 아이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동방사회복지회였다. 그곳에서 친아들과 똑같은 이름에 어울릴 때 모습도 똑 닮은 6개월짜리 아기 정원을 데려와 위탁가정을 시작했다.

네 식구가 함께 살며 먹고 자고 목욕하고, 시장가고, 나들이하고……. 그들은 공기처럼 물처럼 늘 함께였다. 그러나 아이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국제개발 협력에서 장애주류 이슈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으며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

###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전에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새천년개발목표)라는 결의가 있었다. 2000년 9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서밋(Millennium Summit)에서 191개국이 아래와 같이 8가지 목표를 결의했다.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권신장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MDGs 8가지 목표

MDGs는 위의 목표를 2015년까지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채택한 빈곤과 파에 관한 전 세계적인 결의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전 세계는 8가지 목표

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점에 부딪혔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제 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한 채 사회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불평등과 인권 등의 글로벌 과제를 등한시한 데 문제가 있었다. 또 개도국에만 MDGs 이행을 강요하고 부공여국 중심의 개발의제를 택한 점, 질적 발전에 대한 고려를 무시한 채 정량화된 평가를 시도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2015년 안에 8가지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개발협력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MDGs를 대체할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Post-2015 개발어젠다를 시작했다.

### 장애이슈 본격적으로 떠올라

위에서 보듯 초기의 MDGs에는 장애 이슈가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장애인을 위한 MDGs의 실현’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UN 국제개발 프레임워크에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조됐다.

이후 2012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United Nations Economic



한국대표단 기념 촬영.



사이드 이벤트 전경.





사이드 이벤트에서 발표하는 홍현국 국장.



사이드 이벤트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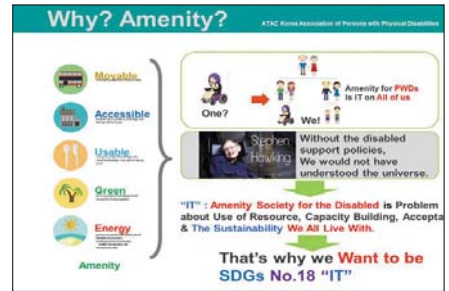
발표를 경청하는 사이드 이벤트 참석자들.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률에 관한 발표 자료.



Amenity를 제시하는 발표 자료.

and Social Council)는 사회개발 의제에서 장애개발 주류화에 대한 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장애를 국제개발의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지정했으며, 장애 주류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SDGs를 구성하던 초기인 2012년, 장애계가 구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 결의한 SDGs의 17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의 종결
2.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3. 보건 증진
4.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및 평생 교육
5. 양성평등과 여권 증진
6. 물과 위생시설 관리
7.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합리적 가격
8.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 및 노동, 양질의 근로제공
9. 인프라 구축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10. 국가 내외의 불평등 감소
11. 도시와 거주지의 지속 가능성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3.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
15. 육지생태계 보전과 숲 보전, 사막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16. 사회계층의 정의 구축 및 효율성 구축
17.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SDGs 17가지 목표

이 중에는 장애 키워드가 누락되어 있다. 단 목표 4·8·10·11 및 17항목의 세부내용에만 장애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등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언급한 항목은 11항목이다.

먼저, 11항목에서 2번째로 언급한 '이동권'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적정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한다.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특히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을 새겼다.

또 7번째로 '접근권'에 대해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친환경적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아동·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결의를 담았다.

### UN 사이드 이벤트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논의의 현장

지난 4월에 UN 본부에서 SDGs에 대해 정부 간 고위급협상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6월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단체와의 의제 확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9월 UN총회에서 SDGs에 대한 결의가 남아있다.

지난 6월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장애인단체들은 각국 대표단을 구성해 SDGs에 장애의 키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UN으로 달려

갔다.

이에 지장협도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관련 분야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side event)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는 짧은 발표 시간 동안 주된 주제 하나를 선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지장협이 하는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지장협과 편의센터, 우리나라가 제정해 시행 중인 편의증진법을 소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상생활에서의 정당한 장애인 편의제공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보행자 도로의 안전에서 편의증진과 관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거 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 편의증진 법령을 소개했다.

그중 공원과 건축물에 대한 편의증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그 외 모든 편의증진법의 대상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확인 제도에 관한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수직이동문제와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니터링 역시 미약한 점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또 현재의 편의증진 제도를 대표하는

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추진해야 할 편의증진 방향으로 「Amenity」를 제시했다.

이는 최소한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증진 분야에서는 아직 낮은 용어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단어에 대해 논의하고 그 방향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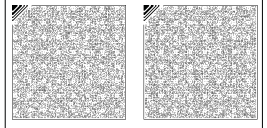
Amenity야말로 SDGs의 11.7에서 언급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보편적인 접근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Amenity는 인적 자원의 회복, 장애인의 역량강화, 다양성의 수용이며 전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가 SDGs의 18번째 항목으로 채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장애 문제 공동 해결해야

이렇듯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는 국제개발협력과 SDGs 현안에 지장협은 이번 UN CRPD 당사국회의 참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KOICA의 장애인분과 신설과 ODA분야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투영하고 있다.

지장협은 국내 최대 장애인단체로서 이러한 기류가 개개인의 관심과 열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장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NGO단체로서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 여행작가 전윤선

## 휠체어 타고 지구별 여행해요

### 여행은 인간의 권리

얼마 전 자신의 여행서 「익숙한 풍경 낮은 이야기」를 출간한 전윤선(48) 작가. 장애계의 한비야로 불리는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의 시장골목부터 전국 기차여행, 인도와 방콕 등 지구별 여행을 이르기까지 자신의 뜨거운 여행담을 섬세하고 깊은 울림으로 담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점에 가면 여행서는 많은데 다 비장애인이 쓴 여행서예요. 장애인당 사자가 쓴 여행서가 있다면 여행을 준비하고 느끼는 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아쉬웠죠. 그래서 제 경험과 이야기거리를 모아 내게 됐어요. 제 책을 시작으로 장애인 여행서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져야죠.”

여행서도 장애인의 선택권이 넓어지도록 다양해져야 한다는 그녀. 그녀는 사람이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듯 장애인도 여행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낮은 곳에 혼자 가기가 두려워 여행은 꿈도 못 꾸거나 복지관·복지재단 등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단체관광에만 합류하는 장애인들을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여행은 인간의 권리거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행을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고 타 지역 정서를 인정하면서 서로 갈등을 좁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행이라는 문화 행위가 아니었다면 지구촌이 지금처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행은 보편적인 권리지만 장애인 여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장애인 관광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와 인식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 장애인이 되고 처음 간 여행지, 인도

그녀는 30대 초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넘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졌다. 갑수목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졌고, 결국 희귀난치 진행성 질환인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한동안



전윤선 여행작가.

절망에 빠져 살던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은 인도여행이었다.

지인들과 함께 떠난 인도, 낮은 문화와 열악한 환경에 당황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인도에는 곳곳에 장애인이 많았는데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다. 기어 다니거나 나무를 깎아 엉성한 지팡이로 이용하고, 자전거를 개조해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며 살고 있었다.

인도인은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늘 이웃에 있는 사람, 혹은 내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만 바라봤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행객에게도 끝없이 말을 거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인도 사람들의 ‘사람을 향한 관심’이 좋았다. 낮은 사람과 묘하게 통하는 마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천천히 존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 그리고 오롯이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몰입 조건이 모든 것이 좋아 지구별 곳곳을 여행하기로 했다.

여행 다녀 온 그녀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공유하자고 세상이 손짓해왔다. 그만큼 다른 장애인들도 여행에 목말랐으리라.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휠체어 배낭여행’이라는 장애인 여행 카페를 개설해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한 몫

1급 지체장애인인 그녀가 여행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밤을 꼴딱 새도 모자란다.

“여행하다보면 불편한 일이 많죠.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떨어져 길에서 서버린 일, 장애인화장실을 기껏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난감했던 경험도 있고, 심지어 들여보내 주는 숙소가 없어 노숙한 적도 있어요.”

불편한 일이 많은 데도 계속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행은 인생과 같거든요.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하는 길도 일종의 여행이에요. 다녀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힘들다고 출근 안 하진 않잖아요. 우리 삶이 힘들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인듯 여행도 그래요. 힘들다고 피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딪히면서 힘든 점을 이겨내거나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게 옳은 거죠.”

그녀의 휠체어 여행기는 아름다우면서도 치열하다. 여행하며 세상의 장벽과 수없이 부딪히고, 끝없이 교감을 시도한 뜨거운 경험담이다. 분

명히 장애인 전용실이 있던 제주도 숙박업소에 다시 가보니 없어져 설득해 부활시킨 이야기, 보도블록 한 가운데 나무를 심어 놓아 지나갈 때마다 찾길로 내려가야 해 민원을 제기했고 6년 만에 나무를 제거한 동해시 어느 길 이야기 등 겉음마다 몸으로 부딪혀 장벽을 없애 온 찌칙한 삶의 궤적을 들려준다. 그녀의 경험담은 좋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 준다.

###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행

그녀는 오늘도 여행하며 사진 찍고, 글 쓰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여행할 때라고 말하는 그녀. 지금도 그녀는 휠체어를 이용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지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꿈꾼다. 꿈을 그저 꿈으로 두지 않고 현실화해 온 그간의 행적처럼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내일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윤선이 꿈은 베스트 여행지

#### 1.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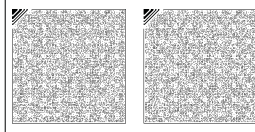
· 우도 : 우도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레 1-1코스 3구간을 꼭 둘러야 한다. 걸어가는 여행객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구간이다. 유채꽃과 현무암, 청보리가 옥색 바다 위에 일렁인다. 이어 우도봉엔 영화 《화엄경》 촬영장소 표시석이 있다. 영화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

· 올레길 : 올레길에서는 어떤 인연과도 서로 인사하며 웃음 짓게 하고 여행객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올레는 순례자에게도 고행의 길이 아닌 여행의 길과 상상한다. 걸어야 보이는 올레 20코스에 꼭 가보시라.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조선시대 최초의 신도시인 수원화성은 당시의 새로운 과학기술과 건축미를 집결한 교집합이다. 성문을 따라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천천히 이동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감탄하게 된다. 이어서 낯고 허름한 마을 행궁동에 가보라. 골목마다 예쁜 그림 웃을 입었다. ‘사랑하다 길’, ‘처음아침 길’을 걸으며 골목길 이야기에 꼭 빠져보라.





# 서울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개발

## 수동배차 대비 3분 단축, 대기시간 안내서비스

모바일앱 예시.



서울시-서울시설공단-카이스트가 지난 5년간의 3억 2000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 이용 고객의 최대 불편 중 하나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자동배차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직접 차량을 배차하는 '수동배차' 방식이었다면, 이번 '자동배차시스템'은 똑같이 상담원이 신청을 받되 시스템에서 △신청자에게 맞는 차량 유무 △접수·대기 순서 △인접 거리 내 가까운 차량 등을

종합 분석해 자동으로 차량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1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자동배차시스템'을 6월 20일부터 본격 도입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자동배차를 통한 대기시간은 3분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배차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동배차를 통한 대기시간은 24.5분으로 상담원 수동배차보다 3분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탑

승 건수 중 자동배차시스템을 통한 배차는 약 23%였다. 또 공단은 서울시 전역을 100m 반경 2만 4000여 개 영역으로 나누고, 요일별, 시간대별, 승차 거리별 통계데이터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월부터 전화·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기시간 안내서비스'를 신설한다.

차량을 신청하면 배차 가능 시간을, 차량이 배차된 후에는 탑승 예정 시각을 알 수 있어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수요에 따라 운전 인원 및 근무시간을 재배치하고 차량 차고지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시와 공단은 덧붙였다.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운전원들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2~3일 단위 순환근무제를 월 단위 고정근무제와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일부를 이전하거나 강남권역에 차고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장애인콜택시 3대 개선방안'을 시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은 공단이 작년 9월 KA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와 협업체 약 6개월 동안 관·학 협업체로 진행했다. 총 3억2000만 건의 빅데이터를 지역별, 시간대별, 요일별 등으로 분석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 혼잡으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30분~최장 9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이용수요는 노원구가 가장 많았지만, 근거리에서 병원 등 치료·재활기관이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은 길지

않았다. 종로구는 교통체증으로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지역별 특징이 분석됐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은 "이번 장애인콜택시 3대 개선방안은 전용 모바일앱 출시, 바로콜 서비스 도입, 다인승 차량 도입 등에 이은 서비스 개선방안"이라며 "특히 자동배차시스템 개발로 이용고객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대기시간 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더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병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은 "장애인콜택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시간 및 배차 등 장애인 분들이 차량 이용에 불편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권 분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당사자의 손길로 작은부분까지 배려한 휠체어! 휠라인이 만듭니다.

국내 유일의 휠체어 맞춤 제작업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주)휠라인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접이식 활동형휠체어



티타늄 활동형휠체어



고정식 활동형휠체어



FX활동형휠체어

### 휠체어구입시 점검사항

- ☐ 휠체어가 튼튼하고 견고한가?  
(휠라인은 럭비선수용 휠체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 ☐ 휠체어의 사후관리는 용이한가?  
(휠라인은 순수 국내기업으로 국내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지원합니다.)
- ☐ 휠체어가 부드럽고 나의 몸처럼 잘 움직여 주는가?  
(휠라인의 댄스스포츠 휠체어를 국내 유수의 프로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휠체어가 타고 싶은 디자인인가?  
(휠라인의 디자인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휠체어가 정교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가?  
(휠라인은 휠체어스포츠 9개 종목의 휠체어를 자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휠라인은 2007년 장애인력비휠체어 개발을 시작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휠체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활동형 휠체어를 국내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휠체어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장고협,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장애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7월 17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희망충전’ (이하 토크콘서트)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2시간 동안 강연과 공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토크콘서트는 전문MC 배은한 씨의 사회로 시작해 휠체어 현대무용가 김용우·이소민 부부의 공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서원선 특임교수와 김희아 작가의 강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브라스앙상블팀의 금관악기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내 1호 휠체어 댄스 챔피언에 빛나는 김용우 무용수는 아내 이소민 씨와 명곡 ‘You raise me up’에 맞춰 휠체어를 강하고도 부드럽게 굴리며, 애절한 동작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김용우 무용수는 공연에 이어



장애인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희망충전’에서 휠체어 무용 공연 중인 김용우·이소민 부부.

마이크를 잡고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장애다”라고 강조하며 자신만의 토크를 펼쳤다.

그는 건강하게 자라 군대도 다녀온 비장애인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그 후 좌절감에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3년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휠체어댄스라는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는 길은 어려움이 따르는 법, 다시 3년간 오로지 휠체어댄스만을 생각하며 연습하고 도전했다. 그 결과 2005년 홍콩 아시아 휠체어댄스대회에서 우승하며 휠체어댄스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기적적인 감동을 불어넣기에 이르렀다.

그는 “누구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고비를 넘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돌아보면 내겐 3년 주기로 인생의 고

비가 있었다”며 “여러분의 인생엔 몇 년 주기로 버텨야 하는 고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재활상담 특임교수

로 활동 중인 서원선 박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경험에서 우러난 장애인 취업 노하우를 콕콕 짚어 주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달팽이가 되기를 응원했다.

또 안면장애인이면서 아내로, 엄마로, 작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희아 작가가 출연해 ‘단점이 장점이야’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녀는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보다는 당당하게 장전화하면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한 장애 학생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다른 비장애 학생은 “그동안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이 확 바뀌었다”며 “오늘 강연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 제4회 꿈티움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부열 작가 ‘업어줘요’ 대상



제4회 꿈티움 공모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꿈티움이 주관한 ‘제4회 꿈티움 공모전 시상식’이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 커넥트홀에서 열렸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모해 심사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은

‘업어줘요’라는 작품을 내 건 한부열 작가가 수상했다.

금상은 윤정인 작가의 ‘연어의 일생’, 은상은 이재운 작가의 ‘환타지아’와 이경희 작가의 ‘계국도’가 차지했다. 동상은 강케빈 작가가 ‘홍콩’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꿈티움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작가들은 멋진 상상력과 실력을 발휘한 작품을 통해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꿈티움은 장애인이 공모전과 전시회를 통해 꿈과 희망의 싹을 틔우는 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전의 심사를 맡은 강석현 작가는 “각각의 작품마다 진정성과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녹아있었다”며 “기존 작가들의 작업에서 볼 수 없던 참신함과 대답함이 돋보였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 후에는 현대 미술가 강석현 작가가 ‘우리는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다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카툰전시회

###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김천시 중앙보건지소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 카툰전시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7월 8일 중앙보건지소 1층 로비에서 박선하 지회장과 김경희 중앙보건지소장, 직원과 이용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카툰전시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카툰전시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 편의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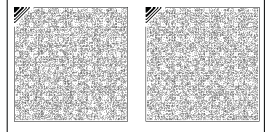
까지 전시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이번 카툰전시회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시회 주제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김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김경희 소장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홍보와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고, 김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2015 보치아서울국제오픈대회

## 국내 최초 개최한 세계대회...한국선수단 선전



2015 보치아서울국제오픈대회 개인전에서 금, 은, 동메달을 수상한 한국선수들. ©대한장애인체육회

2015 보치아서울국제오픈대회가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보치아 세계대회로 14개국 16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22명의 선수단(지도자 11명, 선수 11명)이 참가했고, 보치아 강국다운 면모를 선보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BC3 등급 2인조 부문의 정호원(세계랭킹 3위), 김한수(세계랭킹 1

위), 최예진(2012 런던패럴림픽 1위)이 금메달을, 개인전에서는 정호원이 금, 김한수가 은, 최예진이 동을 각각 획득했다.

이 밖에도 BC1등급 개인전에서는 충남도청보치아실업팀의 이동원이 동메달을, BC1과 BC2 등급이 한 팀을 이루는 단체부문에서는 정소영(세계랭킹 6위, 2012 런던패럴림픽 3위)과 손정민 등을 앞세워 선전하며 2위에 올랐다. BC4는 근육병 같은 운동성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펼쳐

는 경기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개인전과 2인조 부문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리우패럴림픽 출전 확정 티켓은 지난 6월 홍콩에서 열린 '2015 BISFed 아시아&오세아니아 보치아팀페어 선수권대회'에서 획득한 BC3 3장이다. 나머지 등급은 미정이다. 2016 리우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랭킹포인트 대회는 10월 28일부터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2015 보치아월드오픈대회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키팀 창단

### 안정된 환경에서 기량 향상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이창섭)이 장애인스키팀(알파인)을 창단했다.

KSPO는 7월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장애인스키팀 창단식을 진행했다. 이번 창단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비해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창단된 장애인스키팀은

감독과 코치, 남녀 선수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됐다. 현 국가대표 선수이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장애인동계올림픽에 출전해 국내 장애인동계체육 사상 최초로 메달(은메달)을 획득한 한상민(35·남·지체 1급 소아마비)과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로 평가받는 양재림(24·여·

시각장애)이 KSPO 유니폼을 입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실업팀 창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동계종목의 열악한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추진해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이 장애인스키팀 창단식에서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이번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통해 선수들은 체계적인 훈련뿐 아니라 직업선수로써 경제적 안정감을 갖게 되

었다"며 "더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휠체어댄스스포츠 세계적 실력 인정

### '2015 뉴 타이페이 시티컵 휠체어댄스스포츠 대회' 4개 부문 정상



국제 장애인댄스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한국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2015 IPC 국제장애인댄스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실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는 '2015 뉴 타이페이 시티컵 휠체어댄스스포츠 대회'로 7월 11일 대만에서 대회가 열렸다.

대회 기간 한국은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기량을 뽐냈다. 싱글댄 부문에서는 1·2·3위 모두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회 결과 싱글댄에서는 최종철·이영호·강성범 선수가 나란히 1·2·3위에 올랐고, 싱글

레이디에서 장혜정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컴프리스타일에서는 한창우·류지니 선수가 1위, 최종철·손채영 선수가 2위에 올라 박수를 받았다. 콤파라틴에서 이영호·이은지 선수가 1위, 최종철·손채영 선수가 3위로 메달을 획득했다.

또 콤파스탠다드에서 이재우·장혜정 선수가 1위, 두오스탠다드에서 이영호·장혜정 선수가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필리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 10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 선수단은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오현욱 회장과 이경화 감독을 포함해 총 26

## 조기성, 장애인 세계수영선수권 2관왕

조기성(20·부산장애인체육회) 선수가 장애인 세계수영선수권 2관왕에 올랐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015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조기성은 7월 13일 남자 200m S4등급 자유형에서 2분 56초 23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16일에는 남자 100m S4등급 자유형 결선에서 1분 22초 85로 1위를 기록해 2관왕에 올랐다. 종

전 대회 기록인 1분 24초 19보다 1.34초 빠른 기록이자 세계 기록에는 0.42 뒤진 좋은 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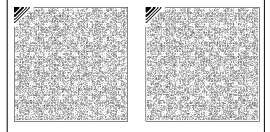
또 남자 50m S4등급 자유형에서는 2위에 오른 조기성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투각을 드러낸 조기성은 지난해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에서 금, 은,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하며 장애인 수영 에이스로 떠올랐다.

명이 출전해 정상급 실력을 자랑했다.

한국 휠체어댄스스포츠는 탄탄한 연기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6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다섯 개와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하며 정상에 오른 바 있다.



# 뉴욕 맨해튼서 '장애인 퍼레이드'

## 장애인법 제정 25년 기념...오준 유엔대사도 참석



뉴욕에서 열린 장애인 퍼레이드. ©AP 통신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해튼에서 장애인 권의 신장을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다.

7월 12일 열린 이번 퍼레이드는 미국 장애인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하고자 뉴욕시와 뉴욕 내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 공공서비스, 주거, 교통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행사를 주관한 뉴욕 시와 장애인 관련 단체는 공평함을 강조하

고자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퍼레이드 참가자를 접수했다.

이날 주최 측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유엔본부 내 장애인 문제 관련 인사나 유엔 주요 회원국 외교관들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은 오준 유엔대사도 한국대사도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퍼레이드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

서 오 대사는 "미국 장애인법 25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세계적 도시인 뉴욕이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권의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뉴욕시도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기념식 뒤 바로 이어진 퍼레이드에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3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 기술 혁신 시대, 휠체어도 진화한다

### 스카레보 휠체어,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 샌프란시스코 지국 기자인 로라 콜로드니는 최근 휠체어의 발전 동향에 관해 기고했다.

이에 따르면 휠체어는 1953년 전동휠체어가 나온 이래 휠체어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요즘 나오는 휠체어는 '개인 이동 보조기기'다.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휠체어들은 계단을 오르거나 좁은 코너를 도는 등 성능이 놀랄 만큼 우수해졌고 이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 가볍고 조작하기도 쉽다.

혁신의 바람은 전동휠체어뿐 아니라 수동휠체어에도 불고 있

다. 최근 수동휠체어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흔히 적용되는 기술을 활용해 탄소섬유와 티타늄,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플라스틱 등 가볍고 얇지만, 내구성은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최신 모델의 전동휠체어 역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개발 중인 '스카레보' 휠체어는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 경사로나 계단을 오르기 위한 별도의 기기가 필요치 않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자동시스템연구실(ASL)에서 제작한 시제품은 양쪽 바퀴에 트랙(무한 레노, 캐터필러)이 달려 계단을

흔사 오를 수 있다. 휠체어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휠체어에 탄 사람이 낙상하지 않게 균형 장치도 가미했다.

현재 나온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보도나 도로, 기타 표면이 매끄러운 장소에서만 탈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소재 업체 '휠(Whill)'의 사륜 전동휠체어는 앞바퀴를 어떤 방향으로든 제어할 수 있어 잔디밭이나 눈길, 울퉁불퉁한 돌길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휠 모델 A'라는 이름의 이 휠체어는 3인치 높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1시간 동안 5.5마일을 갈 수 있으며 10도 정도의



'휠 모델 A' 휠체어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도 주행할 수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경사면도 오를 수 있다.

휠 모델 A는 비교적 소형으로 회전반경도 28인치여서 좁은 코너도 얼마든지 돌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운행은 물론 좌석 조정, 기타 설정까지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다. 원격으로 휠체어를 잠글 수도 있다.

로봇 외골격을 만드는 회사

인 리워크의 CEO 래리 자신스키는 개인 이동보조기구가 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이 일어서고 앉고 걷도록 돕는 보조기구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리워크 같은 회사들이 제작한 외골격은 이미 부분 마비 환자의 재활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엘리스는 장애 아이를 위해 25년간 수집한 장난감을 경매에 내놔. 경매 중인 장난감과 로건의 모습. ©Daily Mail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한 남성이 같은 지역에 사는 희소병 장애 아이에게 휠체어를 사주기 위해, 자신이 25년

동안 모은 장난감을 팔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오리건주 클라머스 폴스에 사는 넷 엘리스(50)다. 그는 척수성 근위축을 앓

## 장애 아이 위해 25년간 수집한 장난감 경매

### 고등학교 교사, 특수휠체어 구입 목표로 1139개 내놔

고 있는 로건 로닌거(4)에게 오프로드 휠체어를 사주기 위해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 장난감을 올렸다.

엘리스가 올린 장난감은 패스트푸드 기념품으로, 25년 전 학생들이 한두 개씩 엘리스의 테이블에 놓고 가면서 수집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139개를 모았다.

그는 최근 동네 꼬마 로건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적극적으로 휠체어 구입에 나서게 됐다. 로건은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좋아하지만, 그의 가족은 1만 7,000달러(1,900만 원)에 달하는 특수휠체어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엘리스는 로건의 휠체어 구입을 위해 소중한 수집품을 내놓기로 했다. 그의 수집품은 은퇴 이후 용돈 마련을 위해 애지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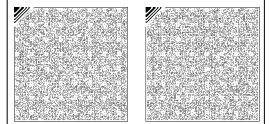
모은 것이다.

그의 장난감에는 피터팬 해적선, 101 달마티안 등 희소성이 높은 것들도 포함돼 고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엘리스는 "이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일본 오사카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견학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대구지원센터장 김창환



지난 7월 초,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가 대구에 설립된지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센터직원들과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 일본 오사카지역을 다녀올 수 있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 이동하자마자 낮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마주쳤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로서 일반 에스컬레이터와 달리 발판 세간이 수평으로 펼쳐지면서 휠체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 휠체어 300대까지 수용 가능한 비아이

공항을 나온 연수단은 오사카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대구지원센터 오사카 견학단 기념 촬영

의 8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건립한 신체장애인이양시설과 종합복지시설인 고베행복촌(시아와세노무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설계·건축한 국제장애자교류센터(빅-아이)를 방문했다. 관리자에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빅-아이는 장애인 스스로 개최하는 국제교류나 문화·예술의 활동장소로서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각종 강연, 심포지엄, 이벤트, 연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다.

또 다목적홀은 휠체어를 3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바닥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승강 바닥 시설을 완비했다. 따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입력이 가능하며,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클로즈업 바스트 샷까지 볼 수 있는 스크린도 갖췄다.

또 다목적홀의 벽면에 걸린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 이외에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방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메시지를 알리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었다. 이는 재난 대비를 생활화하는 일본인의 예방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 넓고 편리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은 내부 공간이 2.0m×2.2m로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상 기준인 1.4m×1.8m보다 더 넓었다. 여자화장실은 12칸 중 6칸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다. 화장실 칸막이 내에는 지팡이를 잠깐 끼워놓을 수 있는 세면대와 핸드워시,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간이침대가 갖춰져 있었다.

한편 필자는 견학 도중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실수로 비상벨을 눌렀다. 그런데 1분도 안

돼 달려온 직원을 보며 놀랐다. 안전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을 위해서 호텔에 머무는 숙박시설과 식당을 완비하고,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천정주행리프트로 침대에서 욕조까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비장애인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설에 감명받았다.

## 관광 동선에 맞춘 경사로

연수단은 장애인시설을 벗어나 고대 유적지인 나라·교토지역의 사찰이나 옛 고궁을 방문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접할 수 있었다.

사찰의 경우 대웅전 입구부터 법당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관광 동선에 알맞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아직 장애인 이동에 제한이 많은 우리나라 사찰과 고궁들을 떠올리게 했다.

일본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

설뿐만 아니라 사찰, 공원을 비롯한 소규모 음식점과 같은 일반 건물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다목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 영유아와 여성, 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이동 제약과 편견 없는 세상 올 꿈꾸며

올해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다. 2004년 편의센터 개소 이후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10년 넘게 편의시설 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편의시설이 법적 강제사항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 심지어 '돈 먹는 하마'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협의 때마다 이런저런 마찰과 불평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편의증진법 기준에서 단 1~2cm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건물은 대부분 기준 이상의 여유를 두고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었다. 연수 내내 이것을 보며 부러운 한편 우리 현실을 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가 목했던 속소의 대중목욕탕을 장애인인 아무런 제약이나 편견 없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동일한 사회적 주체로 보는 인식개선과 함께 모든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발판 세 칸이 수평으로 펼쳐지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바닥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승강바닥시설



우리나라보다 넓은 장애인화장실 내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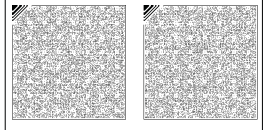


관광 동선에 알맞은 경사로 설치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 어떠세요?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의무화



유럽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인 경우가 매우 많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장, 승진,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정

상근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2년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단축근무를 허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 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

금을 삭감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는 여성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장애여성근로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직장맘 여러분!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 어떠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주택연금 및 생계자금대출

**Q)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자신의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연금 수령액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 가격과 월 지급 유형 기간』 등에 따라 책정되며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 조기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교형 주택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Q) 그럼, 가교형 주택연금은 또 무엇인가요?**

**A)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은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이 주택연금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됐을 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공사에서 시행하는 ‘전환조건 심사’를 거쳐 가교형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관혼상제비·주택관련 비용 등에 대비해 목돈 마련 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연금수급 도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의 한도를 설정할 경우 월 지급액은 그 만큼 줄어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요즘 매스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이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로,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연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

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취급기관은 미소금융지점(1600~3500)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입니다. 주거비는 제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 원, 2.5%)을 늘려줍니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직자, 택시운전원 체험

## 제1차 취업 전 교육 진행



장애인 구직자들이 택시운전원 직무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세룡)는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7월 28일 제1차 취업전 교육을 공동 주최했다.

서울 중랑구 덕수콜택시 본사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택시운전원 직무체험 형식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택시운전

원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 10명이 참가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간단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후 택시운전원의 직무이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까지의 과정, 현장 택시 차량 운행도구 설명 및 체험 진행했다. 교육 내내 장애인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졌다.

덕수콜택시 이현순 대표는 “장애가 있으면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원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상반기 취업자 간담회

### 만족스러운 직장생활과 장기고용 유도

장애인 취업자의 만족스러운 직장생활과 장기고용 유도를 위한 2015 상반기 취업자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7월 31일 예멜바이스 영등포점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취업자 10명이 참석해 직장생활의 적응 방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 대상자는 미화적으로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각각의 고충을 털어 놓고 해법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장애인 근로자는 “나와 같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취업뿐 아니라 사후 지도에도 꾸준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지장협은 장애인근



지장협이 상반기 취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로자들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취업자 간담회는 오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될 예정이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 퀴즈

1.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고자 20년간 매해 꾸준히 개최해 온 지방장애인○○○○대회가 올해 7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3일간의 경합을 마무리했다. 이 대회는?
2.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특수교육 장애인과 직업재활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 ○○을 오픈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들의 직종체험과 직업훈련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카페의 이름은?

### - 독자의견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사와 지면을 할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만성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UN 장애인등급제

### 당첨자

경기 양평군	사방천
경기 부천시	황만성
경북 영천시	이준호

### 독자 기고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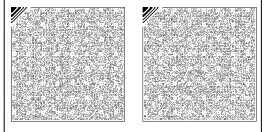
#### 장애인의 눈물

-사방천 님

靑談史方天  
한 많은 설움 속에 흘려온 눈물  
가시밭 헤쳐가며 자갈밭 위로  
걸어온 험난한 연변 그늘에  
피지 못하던 꽃 몽우리  
이제야 햇빛이 들어오네

육신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무시와 불신까지 받아 가며  
기죽어 살아온 장애인가족들  
이제야 자리 잡으며 뿌리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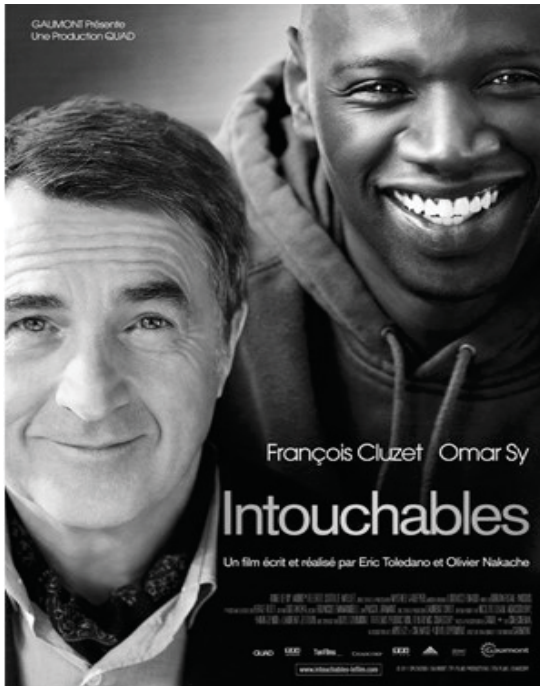
그늘에 가리어 못 핀 꽃 몽우리  
광명천지 만났으니 활짝 피워  
이 넓은 세상 자기 재능 발휘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발맞추어  
활기찬 세상 열어가세



# 언터처블 : 1%의 우정

## 장애인활동보조인 사람인가 노예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허두행 · 최진하



장애인인과 활동보조인의 우정을 다룬 영화 《언터처블》. ©네이버영화

### 노동강도보다 낮은 급여

활동보조인 생활 6년째를 맞은 김○○ 씨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고충이 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걸 생각하면요. 특히 유급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급여는 시간당 8,810원. 심야나 공휴일에는 1만 3,210원이다.

그동안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조금씩 급여를 인상하고 있지만 단 몇백 원 정도 인상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2014년 1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활동지

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총 5만 2600명이며, 활동보조인은 4만 900명이다. 기존에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이용하던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올해 6월부터 3급까지 확대돼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게 됐다. 따라서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활동보조인 간의 갈등 잇따라

하지만 정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은 어떨까?

“예를 들면 저에게 ‘병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후 활동보조인을 바꿨거든요. 이런 걸 내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나 회의가 들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의 말이다.

실제 활동보조인들의 업무태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형사 사건까지 발발하고 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월급제 도입, 노동조건 개선 등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적 교육을 강화하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장애인에게는 1, 2급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3급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 인력과 서비스의 질적수준 확대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활동보조인의 질적교육 개선이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취업해 활동한다. 활동지원 인력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다. 또 이들은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 직업윤리,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인식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은 다소 간소화되어 있어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아무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생의 자격소지 여부에 따라 시간이 구분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유사 경력을 갖춘 경우 전문교육 2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그 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40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호사는 240시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80시간을 교육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교육시간으로 다양한 사례와 여러 장애유형의 이용자들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시간을 늘려 많은 경험과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수료를 위한 필기, 실기시험과 평가를 해 자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15개 유형으로 나뉜다. 장애유형마다 필요한 욕구가 제각각인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은 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틀어 단 40시간 안에 끝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신체장애인에게 적용하는 형태로 장애인을 위한 개호급부

제도를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한 적절한 강사확보와 실습에 적합한 실습시설, 실습지도자 등을 초빙해 연수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 홈페이지인 장애인거택개호종사자의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거택개호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과 중증장애인 긴급대응에 관한 지식, 장애유형별 장애인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런 외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장애유형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유형별 서비스로 개선하고, 중증·경증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같은 장애인에게 장기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개선하면 직업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에티켓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용자를 대할 때 수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을 갖춘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를 강사로 초빙해 간담회 방식의 교육을 추가하면 상호 간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서로 동행자다.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 때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존재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직업적·인간적인 균형을 맞추면 활동보조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고,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7호 2015년 8월 10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02)796-4280 FAX: (02)796-4281 구독문의: (02)2289-4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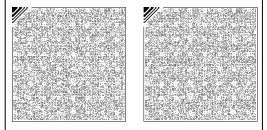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새보람 칼럼

부형종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제주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저는 1944년 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옛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에서 출생했습니다.

평범하게 뛰어놀며 자라던 어느 날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15살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으로 사는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다른 장애인들의 삶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에의 기투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하

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로지 제주도의 장애인복지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협회장의 소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회 발전이 곧 장애인복지 발전이고, 장애인복지 발전이 곧 협회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앞장서서 도내 지체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장애인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장애인들의 동참을 끌어냈습니다. 분산돼 있던 소규모의 장애인 모임을 일원화해 지회 운영으로 수렴하며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권리회복 및 차별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 실

태조사 사업, 정책 자료집 발간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밖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를 운영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으로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주도했습니다.

교육·계몽 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안정 캠페인, 민원상담실무 교육,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개최해 지역 장애인 인식개선과 고충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는 장애인종합예술제, 장애인가요제, 장애인근로자문화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가를 독려해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장협은장애인 인력 발굴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1999년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 제주도지부를 결성해 매년 제주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제주 협회는 꾸준히 지역 장애인들이 기능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전국 종합 7위, 2004년에는 4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며 제주도 장애인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을 개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무료직업 소개소를 개소해 많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지속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운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볼, 보치아, 론볼링, 탁구, 휠체어농구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돕고, 유

능한 장애인 체육인을 양성해 전국장애인체전, 전국휠체어농구대회, 뇌성마비 보치아대회, 전국론볼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제주도 장애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9년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 맞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협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탕으로 지역 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장애인이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제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주, 장애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제주, 그리하여 도내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①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 ②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③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1회 인증)
- ④ 불법 주차차 신고를 누릅니다.
- 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
- ⑥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고위치 수정가능)
- ⑦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 사진·그림 공모

공모기간 : 2015.7.20(월)~2015.9.18(금)



제27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미술부문 대상 수상작 박동국 '계임기'

### ■ 사진공모

- 작품주제 : 지체장애인
- 부문 :
  - 일반카메라
  - 휴대폰사진(스토리사진 가능)

### ■ 미술공모

- 작품주제 : 자유
- 부문 : 서양화 / 동양화 / 서예

문의 : 2289-4381

(담당자 : 오창석, [oh@kappd.or.kr](mailto:oh@kappd.or.kr))

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2015년 전국 장애인직업재활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2016년 직업재활시설평가  
이번 워크숍만 참석해도 평가등급 쏙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가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실무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킴.
- 2016년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올바른 해석 및 교육을 통해 시설의 평가등급을 높이고자 함.

### ■ 일정

#### ▶ 1일차(08.20 목요일)

- 참가자접수
- 중앙회장인사말
- 중앙회장특강(법인의 이해)
- 조직의 활성화(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친교의 시간

#### ▶ 2일차(08.21 금요일)

- 2016년 평가지표설명
- 2016년 평가대비교육
- 2016년 평가실무교육
- 수료증수여
- 폐회식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02-2289-4303(시설지원부 황인숙)

### ■ 일시

- 2015. 8. 20(목) 13:00 ~ 8. 21(금) 13:00

### ■ 장소

- 라온컨벤션(대전 유성구 온천로88)

### ■ 정원

- 선착순 80명

### ■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참가신청서  
접수  
(이메일접수)

접수확인

※ 참가신청서는 <http://www.kappd.or.kr> 협회자료 참고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hiwhiwhi@nate.com)로 회신

## 2015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교육 참가자 모집

- 일시 : 2015. 8. 26(수) ~ 8. 27(목) 1박2일
- 장소 : 덕산스파리조트(충남 예산군 소재)
- 대상 : 장애인상담실무자 200여명
- 주요내용 :
  - 장애인복지정책 및 제도
  - 상담정보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 분임토의 및 사례발표
  - 상담의 이해 및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 문의 : 2289-4320(정책지원부 임상범)